

주의 공헌 대축일

기도서 237면 (B해)
 제1독서 : 이 사 60, 1-6
 제2독서 : 에 폐 3, 2-3a, 5-6
 복 음 : 마 태 2, 1-12

순정이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그들은 대단히 기뻐하면서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마태 2, 11).

□ 감론



주여 ! 1988년을 축복하여 주소서

김 환 철 신부

새해 첫 주일을 맞으면서 교우 여러분과 함께 온누리에 하느님의 축복이 증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동안 나라 차원에서는 많은 혼란과 격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큰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민주화 발전에 축복하여 주셨고 교구 차원으로는 자치교구 설정 50주년 기념사업과 기념행사를 통하여 신앙으로 순교하신 순교자들의 후세임을 자랑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 줄 순교자들의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많은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시 새로운 1988년을 맞으면서 나라 차원으로는 세계 올림픽을 성공리에 마침으로 동양의 아침의 나라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하느님의 나라 됨을 축복하시고 교구 차원으로는 50주년 기념사업의 제일 목표였던 치명자산 성역화 사업과 이루갈다·유요한 동정 부부와 더불어 순교하신 선열들을 성인 반열에 오르도록 축복하여 주십사 하고 우리 모두 두손 모아 기도하는 할 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교우 형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게 될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하느님이시고 참으로 사람이심을 만천하에 공헌하는 대축일입니다. 대부분 신자들은 견진성사를 받은 신자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품격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음을 갖는다는 게 우리 신자들의 기본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하느님이시고 또 인간 마리아를 통하여 태어나셨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심은 철학적인 이론이나 신학적인 이론으로도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메시아이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데 추호도 주저할 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이 세상에 살다가 돌아가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어제 또 계시고 현재 또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는 영원한 하느님이십니다. 예수님 말고 죽음을 정복한 성현이 있다는 말을 들어 보았습니까? 부활은 우리 믿음의 근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생의 목적으로 삼게 되었음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이 한 해에도 풍성한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빕시다. “그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요, 진리의 나라요 행복의 나라요...” (교구 총대리)



세월이 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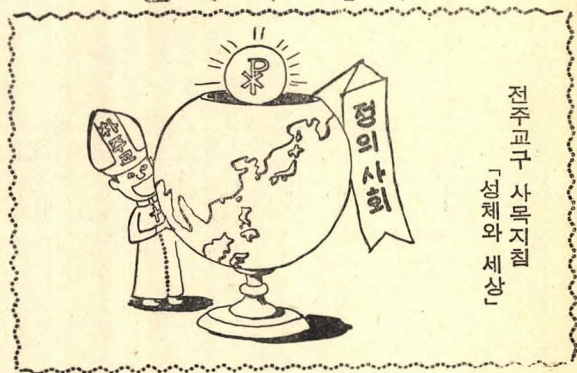
새해가 밝았는데도 머리가 개운하지 못하다. 아니, 마음이 무겁다. 새해 새아침에는 날아갈듯 마음이 가벼워야 할텐데, 왜 그러한가? 하기야 연말이면 멀쳐 버리고 싶은 많은 아픔들 때문에 술잔을 기울이기도 한다. 멍하고 들뜬 마음에 맥없이 거리를 쏘다니기도 한다. 그런데도 속 시원한 꼴이 눈에 뜨이지 않는다. 그래서 더욱 답답하다.

해마다 연말이면 신문들은 나름대로 10대 뉴스나 문제 있었던 사건들을 집약해서 다룬다. 아무리해도 지난해의 큰 사건은 의로운 젊은 죽음이 이어준 시민혁명과 대통령선거, 양의 가족을 뒤집어쓴 늑대들의 추악한 꼴을 꼽을 수 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먹고 살기에 바빠서(?) 쉽게 그것들을 잊고 만다. 그때는 열을 올리던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몇조금 못가서 잊고 마는 것이다. 단방약, 세월을 약삼아서?

그런데 지난 연말, 어느 신문은 조그마한 활자로 이한 열군 사건과 관련된 경찰서장 이야기를 보도했다. 이러구러 하는 과정에서 승진 상신이 되었다는 기사다. 정신이 바짝 난다. 그러면 그렇지, 달라지기를 뭐가 달라져? 그리고 그 이튿날 기사에는 그것이 취소되었다고 보도한다.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충격을 준, 그 작은 기사에 박수를 보낸다.

요사이의 부정선거 시비가 신문광고를 통한 고발과 당국의 발표로 공방전을 거듭하고 있다. 두 야당이 비싼 돈을 들여 고발하는 의혹, 당국의 해명에도 아랑곳없이 계속된다. 그중에도 관심이 쏠리는 대목은 컴퓨터 조작 설과 유명유권자 조작설이다. 사다리를 놓고 수화기를 통해 전해진 숫자를 적던 때가 좋았나 보다. 자르듯 넘어가는 숫자판을 보여주는 TV 시청에 잘못이론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가? 새해에는 궁금중이 제대로 풀리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새해에는 아무 일이나 잊으며 살지 말기를 빕다.

순정이 산책



전주교구 사목지침
「설체와 세상」

□ 新年辭

우리들 자신부터

무진(戊辰)년의 첫 새벽이 어두움을 뚫고 밝아왔다. 이 아침에는 모든 것이 새롭고 빛날 것만 같다. 산도, 들도, 거리도 온 누리와 그리고 우리 마음까지도 창조자의 첫 여명(黎明)을 맞은 것 같다. 이제 우리의 삶에는 슬픔도 고뇌도 가서지고 희망에 찬 새로운 역사의 첫 걸음이 시작되는 것 같다. 누군들이 아침에 보다 더 큰 행복을 빌지 않으랴! 스스로에게 또한 온 가족과 친척, 그리고 알고 모르는 모든 이에게까지 복된 새해를 고무 빌어까지 않으리라. 지난 해 저물어간 날들이 너무나 평탄치 못했기에—

과연 정묘년은 고된 한해였다. 불안과 불신과 아귀다툼의 소용돌이였다. 물론 혼란과 몸부림 속에서도 다소의 발전이 없는 바 아니었다. 그러나 한해를 집약한 결산으로는 위기의식과 허탈에 저문 한해였었다. 격심한 생활고, 불안정한 물가, 실업자군, 민주화를 위한 피와 땀, 살기 위한 노동쟁의 몸부림, 그리고 선거, 이에 따른 부정부패, 테모, 최루탄, 언론문제, 엄청난 경제부패상 등..., 한정없는 사회악과 인간 비참만이 지배한 것 같은 어두운 구석구석을 여기 다시 파헤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교회 내에서도 역시 1987년은 적잖게 바쁜 한해였다. 불안한 사회에 대한 교회의 걱정과 우려, 그런 속에서도 교구설립 50주년의 큰 잔치가 성공리에 끝났고, 천호 피정의 집 외에 성지개발, 성지순례운동 등 여러 가지 바쁜 한해이기도 했다.

사실 오늘의 인간사회는 아직도 교회의 평화와 형제애를 토대로한 인류의 단합, 빈곤극복, 정의구현과 인권의 성취 안에서의 평화호소에는 마이동풍격이다. 각국은 여전히 군비확장에 분망하고 도처에는 가난과 죄악, 인권유린과 부정의, 세속주의와 물질주의 그리고 이에 따른 향락주의가 폭주하고 있다. 새해라고 해서 변화될 것은 없다. 그저 시간이 지났고 해가 바뀌었을 뿐이다. 그러나 여기 한 가지 변할 수 있고 변화되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다름아닌 바로 우리 자신들이다. 우리의 생

각, 우리의 생활태도가 변화되어야 한다. 겉으로만 아니고 속 깊이서부터 혁신되어야 한다. 사실 새해에 소망하는 우리의 행복도 사실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너없이 너를 창조하신 하느님도, 너없이 너를 구하지는 않는다”고 성 아오스당은 말하였다. 사회의 안정도 정의의 구현도, 더 나아가 세계의 평화도, 우리의 구원도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생활 선택없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물론 모든 것은 하느님의 은혜이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우리를 구하러 오시지 않으셨는가. 그러나 이 은혜, 이 사랑, 이 구원을 받아들이는 적극적인 수용태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구원을 절원하는 결손과 뒤우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이 시대는 우리의 탓이다. 나와 너의 죄악의 응보이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저주하고 남을 고발할 것이 아니다. 우리 스스로를 고발해야 한다. 바로 나와 너다. 너와 나, 우리 모두가 변화될 때, 비로소 이 사회도 이 세상도 변화될 수 있다. 스스로를 끌어 올릴 수 있는 자는 세계를 끌어 올릴 수 있다. 여기서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신자인 우리들임은 물론이다. 왜냐하면 사회와 인류구원의 사명을 지고 있는 것이 교회이고 교회란, 다른 무엇도,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들, 그리스도 신자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부터 참되이 복은 인간을 벗고 새 인간을 입어야 한다. 참되이 그리스도를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교는 어떤 주의나 이념이 아니다. 생활이고 삶, 자체다. 우리부터 그리스도의 복음말씀을 따라 살고, 우리부터 교회의 가르침인 형제애, 사회정의, 인권회복, 생활선택에 노력하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

새해를 맞이하여 요행과도 같은 행복을 빌기 전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변혁키 위해 필요한 하느님의 은총을 간구하자.

“恭賀新年”

“우리 주 천주여, 주의 어지심이 우리 위에 내리시어 우리의 손이 하는 일에 강복하소서.
우리의 손이 하는 일에 강복하소서”(시편 89).

파티마 회관

불고기 전문
(탕) 비빔밥 전문
연회석 완비
조 정 선(시 문)
장 금 희(메세사)
☎ 82-1409
효자동 1가 195-14

증보관 “글”

※ 추천 : 한국정신과학 연구회장-김중배 박사
김환철(스페파노) 총대리 신부
총판 전주: 글발서림
보급소: 전주 천사의 집,
성바오로서원, 세종서림,
군산: 군일서점·동원서림
황(프란치스코)회상 편저
(정가 2,500원)

축! 개업

랑데부 커피숍

대표 심 크리스티나
☎ 6-2649
관동로 객사 맞은편

최 윤경(유리안나)

미용실 미용학원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드레스마춤·대여
학생 수시 모집
해외 연수생 모집
이리시 중앙동 3가 7-1
☎ ㉓ 2496 ㉔ 8653

교 구 소 식

1. 치명자산 성역화 위원회 모임 : 8일 오후 3시, 장소-교구청 회의실
2. 시성 청원준비 위원회 모임 : 9일 오전 11시, 장소-교구청 회의실
3. 제3기 교사학교 : 일시-88년 1월 11일(월)~1월 16일(토), 장소-가톨릭센터
과목-아동심리·청소년 이해·프로그래밍·교회사·성서일반·신학일반·상담·레크리에이션 등, 접수-1월 5일(화)까지 교육국으로 접수순 70명
대상-초·중·고 교리교사 및 신임교사·학생지도자, 회비-2만원(중식, 교재제공)
4. 사회복지 후원회 『사랑의 다리』 월례모임 : 1월 4일 10시30분, 장소-사회복지회관
5. 젊은이 형제회 모임 : 1월 3일 오후 2시(저녁식사 제공)
장소-이리 글라라 봉쇄수녀원
6. 남성 제27차 꾸르실료 : 1월 7일(목)-10일(일), 천호 피정의집
①선발통지서를 받은 수강생은 7일(목) 오후 5시-5시30분 사이에 등록바람
②여성 24차(1월 24일) 신청마감은 1월 5일(일) 접수바람
※ 꾸르실료 우편물 발송했음-울뜨레야 책임자는 본당 사무실에 확인바람
7. 성모 푸른군대 피정 : 1월 7일(목) 10시, 장소-덕진천주교회
8. 군중후원회 1월중 월례미사는 총회 관게로 없습니다

✿ 잠 간

87년도 영세자 총 6,971명

각 본당별 잠정집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 입교한 새 형제자매가 6천 9백7십1명이었다. 물론 도시와 농촌본당간의 인구의 차이가 있으나 교구내 48개 본당이 각 본당별로 평균 142 여명이 영세한 셈이다. 그중, 전주 중앙본당이 430여명으로 제일 많았고 그 다음 전주 효자동 420 여명이었다.

대단한 숫자다. 그리고 교회의 큰 성장이다. 새 형제를 맞이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 신부님, 수녀님, 그리고 이끌어오신 신자들에게 참으로 감사롭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다.

이렇듯 날로 커가는 교회공동체에 비해서 자연히 형제애와 그리스도적 사랑, 그리고 신앙의 깊이가 솔직히 아쉬워진다.

하느님과 우리 인간과의 부자관계와 우리 인간끼리 서로 형제처럼 산다는 것의 증거가 되고 도구가 되어 가는 것이 교회 목적이라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와 하느님과의 사이에서 하느님의 아들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관계를 만들어지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하나의 몸을 만들어 간다는 사회적 요소를 갖고 있다. 새로운 영세자는 단순히 교회 조직이라는 형태 안에서만의 의미가 아니라 진정한 형제로서의 의미가 있다는 말이다.

새로운 형제 자매, 기쁘게 맞아들이고 진정 우리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 키워야 할 것이다.

요십이 (752) 김병오



□ 1분명상

하느님의 빛이 통과할 수 있도록 맑게 닦여진 유리를 여러분 자신 안에 보존하십시오.
-G. 알베리오네

명동피부과의원

전북 의료조합 지정 마기환안과의원

부설 : 새한콘택스렌즈
원장 : 전문의 마기환
한남희(비리시더)
오거리 한일은행
건너편 2층
☎ 85-2203

용변을 배웁시다. 발표력을 기릅니다

88. 유치반 원아모집 및 방학특강반 모집

호남용변미술학원(구, 서중학교 로타리) 3-3284
새호남용변미술학원(전주역 앞) 4-3948
효자동용변종합학원(효자동 쌍용아파트 앞) 83-8331
원장 유병철(베드로) 원감 박경애(안젤라)

영어로 노래·율동·역극·회화 등

사단 한국라보(LABO) 법인 회원 모집

모집대상 : 유치원생·국민학생·중학생
접수처 : 구, 서중로타리 (호남용변학원 내)
연구실 : 박경애(안젤라)
☎ 3-3284·72-4417
3-4766(야간)

배달 탕크차 구비
신속 배달

공영 주유소

전화 (0653) 52-8877
52-4748
54-6666
대표 장현순(루가)

북 전주지구 본당소식

(중앙)

사제관 5-1713 주임신부 성민호
사무실 5-1711 보좌신부 최상범
수·유 5-1712 사목회장 엄의도

- ☆ 반미사: 1월 6일 오후 8시, 8반
1. 1988년은 성체성사의 신비를 생생화하는 해
1. 사랑하자 2. 일치하자 3. 나누자
2. 예비자교리 개강: 다음주일(10일)부터 개강합니다
교리시간-순정이 본당란(4면) 참조
3. 병자방문: 5일(화) 오후
4. 모임: 사목회-오늘 공식미사 후, 자모회-오늘 오후 3시, 반장화합-8일(금) 어머니미사 후
꼬미시움-다음주일 오후 2시
5. 성체회 성체조배: 새해에도 지속적으로 하시기 바랍
6. 영세자(성탄반) 사진: 사무실에서 구입(2천원)
7. 50주년 기념사진: 1천원, 사무실 구입
□ 지난주 봉헌금: 1,198,350원 교무금: 2,083,500원

(금암)

사제관 3-1653 주임신부 오현택
사무실 76-0961 사목회장 소완영
수녀원

- 1. 사목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L·M 연차친목회: 8일 오후 6시
3. 금오회 조직: 회장-김형배, 부회장-문치상, 총무-문광섭, 감사-이희찬, 칫모임-10일 공식미사 후
4. 청년연합회 총회: 10일 오후 3시(우들이)
5. 감사: 대형 십자가 기증(뜻있는 교우들이)
6. 성시간 및 울트라아: 7일 저녁미사
7. 사목회 임원개편: 회장-소완영, 부회장-정문영·박영근·김정희, 총무-장춘식·장수택, 고문-손희장·김주영·정주환, 감사-이춘수·김제열·최장수, 선교부장-윤기환·차장-김명수, 교육부장-한철수·차장-라홍덕, 재경부장-신동철·차장-김영택, 홍보부장-서명열·차장-양재순, 구역부장-윤정배·차장-김종섭(51반), 전례부장-김종구·차장-이장우, 봉사부장-김연준·차장-김창선, 청소년부장-나인구·차장-문승욱, 애령부장-장일동·차장-이정성, 여성부장-서연옥·박실빈
※ 수고하셨습니다-다정동회·박준용·황보용남·김웅택·한귀석·정선일·김형수
□ 지난주 봉헌금: 643,290원 교무금: 1,070,000원
신축헌금: 240,000원

(덕진)

사제관 72-6107 주임신부 성태수
사무실 3-2182 사목회장 양상렬
수·유 72-1222

- ◎ 지난 한해동안 받은 은혜에 감사드리며 기쁨의 새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1. 사목회 임원개편: 사목회장-양상렬, 부회장-김계형·이강호, 총무-고명수, 선교-박용철, 전례-일실, 재경-고명수, 교육-이동우, 청소년-유대희, 사회복지-안철기, 여성-임병순, 구역-김귀배, 홍보-남명신, 고문-전종근·김성록·김낙현·유재상, 감사-전홍철·김형렬
2. 오늘의 모임: 사목회-오후 5시(사목회의실)
요셉회-공식미사 후(2층 회의실)
3. 레지오 마리아 연총친목회: 오늘(3일) 저녁미사 후 성당에서. 각 레지오단원 및 협조단원들 참석바람
4. 중·고생 방학 특별교리(학사님 주관): 10일~16일까지, 17일-단합등반대회
5. 금주전례: 해설-정석의, 독서-복사-전복희 주관
기도-덕진9반 주관
차주전례: 해설-박기자, 독서-복사-베드로회
기도-덕진10반 주관
5. 금주 본당청소: 평화의 모후pr-9일 오후 2시
□ 지난주 봉헌금: 671,460원 교무금: 1,427,000원

(동산)

사제관 74-4614 주임신부 권이복
사무실 76-1289 사목회장 박영철

- ☆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문·민옥남 수녀님-3일날 가실
☆ 수고하시겠습니까: 새로 오시는 수녀님-10일 오십
1. 각 단체별 88년도 계획서: 빠른 시일내로 사무실에 제출바람
2. 예비자교리: 성인-목 오후 7시30분
중·고생-토 오후 6시

- 3. 생활교리: 공식미사 후-수녀님 지도
4. 모임: 요셉회·애령회-오늘 공식미사 후, 울트라아회의-11일 오후 7시30분, 동명회-9일 오후 6시, 안나회·글라라회-차주 공식미사 후
5. 철소: 자비의 모후 방문: 하늘의문
6. 수요 나눔잔치: 6일-농원
7. 수녀원 신축헌금: 28일까지 신일액-13,765,850원(142세대), 남부액-12,364,850원
8. 금주전례: 해설-한기철, 독서-①이의준 ②신문자
차주전례: 해설-손택규, 독서-①조용기 ②김진순
□ 지난주 봉헌금: 331,770원 교무금: 614,000원
수요헌금(영세식): 103,940원
성탄미사헌금: 527,910원(전야미사-319,760원)

(송천동)

사제관 74-1004 주임신부 김태윤
사목회장 소병을

- 1. 사목회 정기총회: 3일 12시30분 소성당
2. 레지오 연총친목회: 3일 오후 3시 강당
3. 모임: 성심부녀회-1일 공식미사 후, 까리따스회-5일 오후 1시(강당), 영세자 모임-3일 공식미사 후(강당)청년회 임시모임-9일 오후 6시
4. 불두이웃돕기: 세분께 2만원씩 전달했음
5. 교무금: 88년도 백집없어 신일하시기 바랍니다
6. 금주 본당청소: 셋별pr, 9일 오전 11시
7. 금주전례: 해설-이기임·심상기
독서-기도-창조주의 어머니pr
차주전례: 해설-김광자·김은식
독서-기도-전당구역 주관
□ 지난주 봉헌금: 233,160원 교무금: 560,000원

(순정이)

사제관 76-1320 주임신부 나궁열
사무실 3-7366 사목회장 박해근
수녀원 3-9567

- 1. 1월은 전교의달 2월반 예비자 교리반 모집(목요일반, 주일반)
2. 오늘모임: 중·고학생회-정기총회, 성모회·푸른숲-공식미사 후
7. 7일: 성시간, 시간-오후 7시
금년은 "성체안에 하나 되어"의 해임
4. 남성 27차 꾸르실로: 7일~10일, 이종상·이규철
5. 조등부 6학년 졸업피절: 일시-18일~19일(1박 2일)
장소-본당, 주최-북전주지구 연합회, 참가비-6천원
중·본당보조 3천원. ※ 해당부도님 협조바람
6. 조등부 교리교사 정기총회: 10일 오후 5시, 교사실
7. 지난해 영세한분은 226명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8. 금주 본당청소: 화-바다의별, 토-셋별의모후
9. 미사안내: 평화의모후
10. 금주전례: 해설-홍성주, 독서-기도-유춘용·윤덕남
봉헌기도-박병열·김용림
차주전례: 해설-홍성주, 독서-기도-오정중·신덕순
봉헌기도-신천우·권진도
□ 지난주 봉헌금: 509,980원 교무금: 1,984,000원

(인후동)

사제관 74-1929 주임신부 서용복
사무실 76-6389 사목회장 김병문
수녀원 75-6389

- 1. 사목회 임시총회: 10일 공식미사 후(각 분과위원 차장 꼭 참석바람)
2. 예비자교리: 6일부터 시작합니다
오전 10시, 오후 8시, 주일 오전 9시(학생)
3. 새해를 맞아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을 빕니다
4. 금년은 성전 건축의 해입니다
5. 배소리(기쁜소식) 성경연구: 3월 18일부터 시작합니다, 접수는 박수녀님께
6. 자모회 임원선출: 회장-이복희, 부회장-김정희, 총무-홍경희, 서기-박정현
7. 주일학교 교리 병합실시: 미사 오후 4시(87.12.27~88.2.21까지)
8. 구역장님 월례회의: 7일 어머니미사 후
9. 영세사진 찾아가세요
10. 금주전례: 해설-전길자, 독서-기도-박창윤·황영자
봉헌-박동철씨 부부, 안내-김병문·안남근
차주전례: 해설-이순영, 독서-기도-정수일·강경희
봉헌-김진영 부부, 안내-나동진·박창윤
□ 지난주 봉헌금: 532,330원